

좋은 카메라

어떤 사진작가가 식당에 갔다. 그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직원에게 보여주며 자랑했다. 그런데 그 직원이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.

“사진 잘 나왔네요. 카메라를 좋은 거 쓰시나봐요?”

화가 머리까지 치밀어오른 사진작가는 태연한 척 식당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.

“저녁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. 냄비 좋은 거 쓰시나보죠?”